

## 목사와 교회는 무엇을 남기고 하늘로 가는가?

성경말씀: 딤후2:1-2

요즘 아내가 자주 하는 말: “우리 얼마 안 남았어. 알지?” 여러 의미,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께 갈 날이 많지 않다. 인생의 후반부를 건강하게 잘 마무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며칠 전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 <목사는 무엇을 남기고 떠나는가?>, 제목이 좋아서 시청함

내용: 최근 개인적으로 아는 몇 목회자들이 은퇴했습니다. 큰 교회를 담임하는 분도, 아주 작은 교회에서 평생 사역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고령으로, 병으로 이 땅을 떠난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는 2018년 추수감사주일에 마지막 설교를 하고 연고가 없는 경남 거창으로 떠났습니다. “이재철을 철저히 버려달라”면서 ‘거침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사도행전 29장을 써 나가자는 말을 남겼습니다. 깔끔했습니다.

당시 기독교 언론들은 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를 시무하던 이재철 목사의 은퇴 소식을 대서특필했지요. 그는 성도들에게 “이재철을 완전히 잊어달라.”는 말을 해서 유명해졌습니다. 깨끗한 은퇴, 흔적을 남기지 않은 퇴장에 대해 박수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이것이 의문이었습니다. 목사의 은퇴가 이슈가 될 만한 것인가? 뭐가 깨끗한 은퇴인가?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목사는 깨끗한 은퇴를 유산으로 남기는 사람인가? 이 문제는 목사란 무엇인가? 목사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하는 목사의 사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간은 언젠가는 떠납니다. 떠난 자리에는 무언가가 남습니다. 목회자들의 퇴장을 보면서 질문하게 됩니다. “목사는 무엇을 남기고 떠나는가?” 아니, 목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다른 직업군과는 구별되게 남기는 흔적은 무엇인가?

나는 이재철 목사의 떠남이 깔끔하고 신선했지만, 그것이 ‘목회자 이재철’의 흔적을 기억하는 표준이 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깔끔하게, 빈 배로 떠나는 것은 요즘 세상에서는 존경받을 일이지만 그것은 목회자가 아닌 다른 직종의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떠나면서 악취를 풍기는 사람들도 많지만 맑은 향기를 풍기며 아름답게 퇴장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목사는 ‘영원까지 이어지는 생명’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직종 중에서 ‘목회자’라는 직업을 선택한 사람은 그 순간,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기를 던지기로 다짐한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그 일(목회)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한 사람만이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통해 드러난다!

오래 전부터 ‘목사들의 목사’로 불린 영국의 윌리엄 스틸 목사는 “이 세상에서 목회 말고 조금이라도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목사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보기에 ‘다른 일’들이 목회보다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단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래서 다른 이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헌신하기로 결심했다면, 그 목사는 자기의 능력, 선호와는 상관없이 생명을 위해 마지막까지 자신을 불태워야 합니다. 김남준 목사의 불꽃 목사론

생명을 구한다는 측면에서 진정으로 참된 곳은 이 땅에서 교회 외에는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수많은 기관과 구별되는 유일한 점은 그곳에서는 영원까지 이어지는 생명과 관계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목사와 교회는 생명을 전해 줄 수 있을 때에만 올바르게 기능합니다. 이것은 목사로 불린 직업군의 사람만이 아니라 ‘주님의 몸 된 교회’가 된 모든 크리스천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일 것입니다.

2018년, 한국 사회 도처에서 생명과 생수를 갈구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물 좀 주소!” “젓 좀 주소!” 수많은 부조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교회를 여전히 바라보고 있는 것은 직감적으로 그곳에서 생명의 젓이, 생명의 물이 흘러나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오직 생명과 생수를 줄 수 있다면, 그곳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들이 생명을 던져 생명을 구하는 일에 헌신한다면, 다시 사람들은 교회로 올 것입니다. 한국교회 부흥의 길은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목사는 생명을 남깁니다.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목사가 남길 것은 예수님입니다.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실패했건, 성공했건 상관없습니다. 작은 교회 목사라고 의기소침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곳에서 한 명의 생명이라도 살아난다면 그는 성공한 목회자입니다. 실패하고 추락한

목사들도 그 추락의 현장에서 다시 가난한 마음으로 생명을 구하러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도 놓쳐서는 안 될 그들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찬가가 한국교회와 이 땅에 울려 퍼지길 기대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는 일이 있어 대구에 가면서 대구 스테반 침례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저녁 6시 20분쯤 도착함, 20여 명,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25명, 그 교회 출석하는 분, 방문자 2시간 반 정도 함께하며 지역 교회가 무엇인가 설명하고 옴  
그래도 목사가 온다고 하니까 무언가 개인적인 이야기, 구원 이야기, 성경 이야기 등을 나누려고 오신 분들, 잠시 소개만 하고 긴 이야기는 하지 못해서 죄송했음. 언젠가 기회가 되면 길게 시간을 잡고 다녀오려 한다.

1. 2년 전 방문, 예배 처소가 너무 누추해서 방문자들이 정착하기에 어려움, 이번에 우리 교회의 재정 도움으로 대로변에 5층 건물 얻고 아주 단정하게 꾸미고 모이고 있어서 기뻐다. 우니른 지교회를 하지 않지만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에 도움이 필요하면 그냥 돕는다.
2. 사랑침례교회를 벤치마킹하며 영혼의 자유를 추구하며 성도들을 이끌 누군가가 목회자로 오기를 갈망함. 이들의 간절한 눈망울을 보며 마음이 무거운 가운데 다시 돌아왔다.

오늘 <목사와 교회는 무엇을 남기고 하늘로 가는가?>, 우리 모두의 간절한 소망: 바른 교회를 해 보고 싶다. 이를 위해 바른 목회자가 필요하다. 목사와 교회가 할 일, 지킬 일, 남길 일

#### 디모데에게 보는 글

이런 기본적인 명제를 다루려니 예수님과 바울을 살펴보는 길 밖에 없었다. 교회의 소유자, 목사장, 목사, “이 두 분은 어떻게 목회를 하였는가? 어떤 유산을 남겼는가? 교회를 남겼는가?”

예수님의 목회: 12제자와 소수의 믿는 자들, 오순절 성령 강림 이들의 수는 120명, 이들이 생명을 남기고 온 세상을 바꿈, 그 뒤 사도 바울: 20,000킬로미터 이상을 다니며 여러 교회를 세움,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심히 작은 교회들, 그런데 이런 교회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온 세상에 퍼짐  
이 일을 위해 바울은 교회를 위한 14권의 서신서를 남김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의 유언,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두고 믿음 안에서 자기의 아들이요,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의 서신,

#### 1.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1)

디모데의 성격: 유순하고 담대하지 못한 면이 있다,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강한 자가 되라고 권면함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한 자’

율법은 모세를 통해 왔으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을 통해 왔다(요1:16-17).

지난주 설교, 예수님의 말씀 나는 희생 예물이 아니라 공흠을 원하다(마12:7).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연기 나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마12:20).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긴 말: 그리스도의 은혜의 강 속으로 잠겨서 그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라.

예수님을 보자: 누구에게 은혜를 끼치려면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한다. 베풀 의지가 있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방법이 없음, 스스로 사람이 되셔서 자기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려 단번 속죄 구원을 완성하심

이런 면에서 교회와 목사는 본인 스스로 은혜를 체험하고 유지하고 남기고 떠나야 한다.

목사를 위한 베드로의 조언: 벰전5:1-6

1-4절: 목사들이 은혜롭게 해야 한다. 3절을 기억하라. 그리고 4절을 기억하라.

5-6절: 젊은이들, 새로 온 사람들도 은혜롭게 해야 한다. 진리를 배워서 교만하게 행하면 안 된다.  
교회와 목사는 은혜와 공흠을 체험하고 베풀면서 살며 그런 문화를 후대에 남겨야 한다.

#### 2. 전달자와 전수자(2)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겨서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하라(2).

1. 바울은 목사로, 복음 전도자로 마땅히 전할 것들을 말과 글로 전하였다. 이것이 그가 남긴 것이다.

2. 그리고 디모데는 바로 그것들을(The same)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겼다. 다른 것들은 안 된다.

바울이 전한 것들, 이것은 디모데가 남긴 것들

3.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바로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친다. 그들이 남기는 것  
결론: 바울이 믿고 가르쳤던 것들을 우리 역시 받아서 지키고 남기면 된다.

그것은 다름 아닌 진리였다. 요1:17, 율법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 은혜 설명  
목사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를 남기고 간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이다(요14:6).

교회와 목사: 딤편3:15

#### 바울이 전한 진리(The same)

1. 바울의 회심: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분만이 온 세상의 유일한 구원, 주님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딤편1:13-16

나의 과거(13), 주님의 은혜(14), 예수 그리스도(15), 나의 구원과 사명(16)

목사와 교회 그리고 리더들은 이것을 확신해야 한다. 명심하고 지키고 남겨야 한다.

2.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을 받고 지키고 남기고 죽었다. 디모데도, 다른 목사 교회들도  
딤후1:6-12

6절: 기억해야 한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유산을 남기고 있다.

7절: 건전한 생각을 해야 한다. 남겨야 한다.

8절: 복음의 고난에 참여해야 한다. 대구 교회, 진주, 진해, 광주, 반석, 뉴질랜드 등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은 유산을 남기는 것이다. 생명을 남기는 것이다.

마16:18, 예수 그리스도의 내 교회

9-10절: 복음의 핵심, 행위가 아니라 은혜, 은혜를 가져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믿는다.

11절: 세상의 복음 선포 사명, 12: 우리의 확신

#### 구체적인 교리

1. 성경에 관한 교리: 하나님께서 무오하게 영감으로 완전한 성경을 주시고 섭리로 그 말씀들을 보존해 주신다. 우리 손 안에 있다. 우리는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

2. 하나님은 삼위일체, 가장 중요한 속성은 거룩함과 공의이다. 그 기초 위에 사랑이 있다.

3.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받는다. 이 구원은 절대적으로 영원하다.

4. 우리는 성도들의 성화를 믿는다. 반드시 변해야 하며 변할 수밖에 없다.

5.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는다.

6. 휴거를 믿는다. 환난 전 휴거를 믿는다.

7.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

8. 우리는 동성애, 진화론, 공산주의/사회주의 등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고 믿는다.

9. 교회 안에서 영혼의 자유, 위선과 가식 배제

10. 아이들 교육의 중요성, 대중 교육의 중요성

#### 우리의 유산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은 가족을 남긴다.

우리는 무엇을 남기려는가?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 생명과 부활, 이것들을 추구하는 교회들과 새 생명들을 남긴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행하고 남기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한다. 사랑침례교회로 모인다.

최선을 다해 우리의 시간, 에너지를, 재물을 드린다.

딤후4:7-8